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完)

宋 旼 求
송민구건축연구소

3. 의미적 코드(Semantic Code)

이것은 건축의 의미단위에 관한 것이며, 또는 개개의 건축적 기호매체 “심지어 어떤 건축적 통합체(統合體, Syntagm)까지”와 외연적 및 내포적 의미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의미적 코드는 그러한 관계에 따라

- (a) 1 차적 기능을 외연적으로 지시하는 단위(지붕, 계단, 창과 같은 것)
- (b) 2 차적 기능으로서 내포적 의미를 지닌 단위(박공의 면, 개선문 아치, 신고덕 아치)
- (c) 거주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외연적으로 지시하는 단위(사교실, 식당, 거실, Parlor) 또는
- (d) 큰 스케일로서 어떤 기능면과 사회성을 띤 형식미에 도상학적 의미를 지닌 단위(병원, 별장, 학교, 궁전, 철도역사) 등으로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세분화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전원도시’라든가 ‘신시가지’와 같은 형식에 대해서, 또는 요즈음의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전통과 수법이라고나 할 것을 이룩한 조소적 변화 또는 조절을 하는 수법 *Modioperandi*(전위 예술의 미학에서 유도된 것)에서 나타난 코드화 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예코가 말한 의미적 코드를 세분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 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된 바를 더욱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과 같다.

어떤 건축적 통합체(統合體, Syntagm)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群)으로서도 파악되는 것이다.

주: 통합체(統合體)라는 것은 건축을 예로 들면 기둥, 보, 지붕, 벽, 창, 문 등으로써 하나의 건축이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 하나의 건축을 통합체라고 한다. 그런데 기둥을 예로 들면 그 형태가 여러 종류 있을 수 있어 그 여러 종류의 기둥을 하나의 계열체(系列體, Paradigm)라고 한다. Paradigm은 원래 외국어에서 동사의 어미변화형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불국사를 예로 들면 중앙의 대웅전 하나만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으나 다보탑, 석가탑, 무설전, 또 그 전체를 둘러싼 회랑으로써 구획된 속에 여러 조영물이 배치된 것으로써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건물배치의 의미의 하나로써 신앙의 대상이 사리탑(舍利塔) 중

심이 아닌 금당(金堂) 중심 다시 말하여 불상 중심으로 신앙의 대상이 변천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듯 하나의 개체 뿐이 아니라 복합체로서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음 2 차적 기능으로서 내포적 의미를 지닌 단위로서 예에서와 같이 박공의 면과 같은 경우 Greece의 고대 신전 건축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박공의 면에 부조(浮彫)로 장식하는 따위가 그러한 것이다.

한편, 큰 스케일로서 어떤 기능면과 사회성을 띤 형식미에 도상학적 의미를 지닌 단위라는 것은 예에서와 같이 철도역사의 건축적 형태를 보고 아무도 성당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옛 조형에 나타나는 도상학적인 것으로서 곡선에 대해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거니와 직 4 각형에서 두 변을 인(人)과 지(地)라고 할 때, 대각선은 천(天)의 의미를 지

통사적 (Syntactic) 분석	의미적 (Semantic) 분석	실용적 (Pragmatic) 분석
		3 굴법 금강 역사상 첨성대
		황도와 백도의 교차 완자 문양
		안상 불상의 광배(光背) Ogee arch
천인 일체 사상의 조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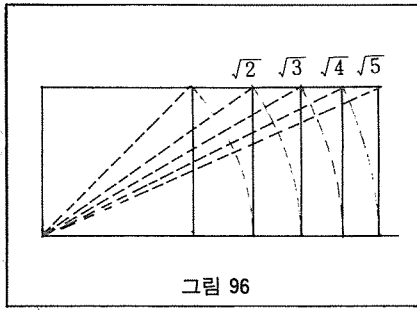


그림 96

닌다. 그리하여 그 대각선과 인에 해당하는 변으로써 새로운 구형을 만들어 조형에 응용하였다. 그러한 기법을 대각선 전개법이라고 하며 $\sqrt{2}$ 구형, $\sqrt{3}$ 구형, $\sqrt{5}$ 구형 등 신비로운 구형을 대각선전개법으로써 구하여 옛부터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림 96)

한편,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 또는 달이 지나가는 길인 백도(白道)를 도상학적 요소로서 모든 옛 조형에 썼다고 본다. 그 모든 곡선은 현수곡선 또는 3각함수곡선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변형으로 귀일되며 그 기법의 바탕에는 천인일체사상(天人一體思想)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천인일체사상이 왕가의 조형물에서 철저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의미가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망각되었을 뿐이다. 그렇듯 곡선, 면의 크기의 비례 등이 천인일체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동시에 천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며, 한편 고대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삼라만상의 생성의 원리인 오행사상(五行思想)과 윤회사상(輪廻思想) 또한 바탕에 깔리는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영혼불멸설과 동일한 것이다.

즉, 물이 있어 그에서 나무가 나고(水生木), 나무가 있어 불이 나며(木生火), 불이 타 재가 생기고 흙이 되며(火生土), 흙에서 쇠가 나고(土生金), 쇠가 녹으면 물이 되어(金生水) 다시 그러한 생성의 과정을 반복하여 영원히 윤회하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인들 예외는 아니며 다만 영혼만이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혼불멸설이다.

그러한 우주관, 인생관이 수의 신비성과 결부되어 도상학적으로 구성된 것이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이며 동양 고대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바 천인일체사상과 복합되어 조형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4 靑	9 紫	2 黑
3 綠	5 黃	7 赤
8 白	1 白	6 白

그림 97

동양 고대건축의 특질의 하나인 단청(丹青) 또한 그러한 사상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즉, 낙서는 수학에서 방진(方陣)이라고 하였다. 방진의 수에는 각기 색명이 붙어 있어(그림 97) 그 색명에 따라 단청의 주조색(主調色)이 정하여진 것이다.

즉, 방진의 하단은 1,6,8로서 색명은 전부 백색이다. 건축으로 말하면 기단으로서 흰 돌을 쓰게 된다. 중단은 3,5,7로서 3은 녹색, 5는 황색, 7은 적색이며 창호, 기둥, 벽의 구조색으로 쓰게 된다. 상단은 2,4,9로서 2는 흑색, 4는 벽색(靑色) 또는 푸른색, 9는 자색으로서 지붕을 검은 기와 아니면 청기와를 쓰게 되는 것이 그러한 까닭이다.

다만, 청기와는 유약으로서 비취를 썼다고 하는데, 양질의 비취는 중국에서도 생산되지 않으며, Silk Road를 따라 먼 서쪽 Khotan에서만 생산된다고 한다.

Khotan은 Kunlun산맥의 산록에 있으며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길을 넘어 남하하면 인도 북부 Kashmir 지방의 Srinagar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불교가 전파된 하나의 Route인 것이다. 그 Kunlun산맥은 만년설이 덮여 있어 더운 계절이 되면 중턱에 있는 눈이 녹아 계곡을 따라 급류가 흘러 내리는데 그 급류에 비취원석도 산기슭에 흘러 내려온다는 것이다.

또, 도자기에 쓰인 청화(靑華)라는 색소는 성분이 코발트이며, 코발트 역시 중동에서 대상들에 의하여 Silk Road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염료이고 지극히 고가였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한때 사용금지까지 한 염료로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재수입하여 사용하였거니와 너무나 고가이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극히 소량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화를 기와에 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듯 단청에 이르기까지도 중국 고대사상이 스며 있는 것이다.

6. 전통의 계승

에코의 말을 빌리면

“문화의 총체(總體)라는 것은 의미작용(Signification)과 전달(傳達, Communication)이며, 인간과 사회는 전달과 의미 작용에 관한 관계가 확립된 경우에 한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언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언어기호는 그 복잡한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의미작용에 의하여 인간과 사회사이에서 전달하는 관계가 확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회의 언어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에코는 그의 기호론(記号論, Semiotics)에서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문화현상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분석을 가하였다. 즉

a)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물건의 생산 및 사용

b) 물건의 경제적 교환

c) 제도화된 사회관계의 기본적 핵심으로서의 친족관계

이상과 같은데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a)의 경우 하나만을 인용하면 도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방법은 일반언어학에서의 Ogden-Richards의 기본 3각형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써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에코가 인용한 예는 Australopithecines 원인(猿人)이 개코원숭이의 두개골을 쪼개는데 돌을 썼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그러할 경우 하나의 자연적 대상이 도구로 틀림없이 변한 것이나 그것으로써 곧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최초로 쓰인 돌은 Gaden-Richards 기본 3각형에서 Symbol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다음 그 원인이 그와 유사한 다른 돌을 구하였다고 할 때 최초의 돌과 같은 기능을 지닐 것이라고 인지한다. 그 다른 돌은 최초의 돌과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으나 개코원숭이의 두개골

을 쪼개는데 유용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돌이라는 Ogden-Richads의 기본 3각형의 지시물(指示物, reference)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최초의 돌과 동일한 기능을 지닌 것이라는 돌 또는 지시물은 일반적인 Model로서 개념이 형성되어 그 구체적인 한 예로서 인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Model을 기본 3각형의 지시(指示, Referent or Thought) 또는 개념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반적인 Model은 명칭을 지니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최초의 돌과 그와 유사한 돌은 일반적인 Model의 기능 또는 명칭 다시 말하여 어떤 가능한 의미의 기호 매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발상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는 것이다. 즉

1)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생물이 돌의 새로운 기능을 확인한다. (그것을 직접 사용하든가 부식물로 용도를 바꾸어 쓰든가 등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다.)

2) 돌에 관해서 “어떤 것에 소용이 되는 돌”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가 소리를 내어 말하든가 등과는 관계가 없다.)

3) 돌에 관해서 “F라는 기능에 반응하며 Y라는 명칭을 지닌 돌”로서 인식한다. (단, 그러한 것으로서 돌을 다시 사용하던지 않하던지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하자면 형식논리학에서 말하는 개념형성의 과정으로서 대상을 표상(表象, Vorstellung)하여 a) 비교하고, b) 추상하며, c) 총괄하고, d) 명명(命名)하는 과정을 밟아 개념이 완성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일반적인 Model의 개념형성에서 밟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개념은 의미작용체계(Signification System)를 형성하여 한 측면은 외연(外延, Denotation) 다른 한 측면은 내포(內包, Connotation)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건축에서 말하면 앞절에서 언급한 의미적 코드로서 1차적 기능을 외연적으로 지시하는 단위와 2차적 기능으로서 내포적 의미를 지닌 단위가 그것이다.

그러한 의미작용의 모든 관계는 전달(傳達, Communication)을 목적으로

로 하는 것이며, 앞에서 말한 바 돌의 기능을 언어적이라든가 서화적인 기호로서 대상과 기능 사이의 의미작용에 따른 관계가 확립되어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문화라고 예코는 정의하였다.

의미작용의 전달과정은 여러가지 형태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의 전파 또한 그러하며, 단 한사람에 의하여도 또는 집단에 의하여도 전파되어 가는 것이다. 역사는 그것을 잘 말해주며 마르코 폴로에 의해 중국의 화약이 서구에 전해진 것은 단 한사람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후 전쟁의 양상은 일변되어 인류에게 많은 비극을 안겨주었다. 또, 당나라 장군이었던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으로서 고선지(高仙芝)장군은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서역, Pamir 고원, 지금의 소련의 Aral해까지 정복하였다. 그런데 서기 751년 Saracen과의 싸움에서 일부 터어키계 용병들의 모반에 의해 국지전에서 지게 된다.

그리하여 Saracen측에 포로가 된 당나라 군인중에 제지직공이 있어 제지기술이 Saracen에 전해지고 또 양피를 쓰고 있었던 서구에 전해져 세계문화사의 일대 전환기를 그었던 것이다.

현대도 옛날과 다를 바 없으며, 2차대전후 소련은 독일군 포로를 장기간 억류하여 그들의 기술을 습득한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그렇듯 문화는 공간적으로 전파되어 가기도 하며, 시간적으로 전파되어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문화의 여러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지극히 강하게 받았던 것이다. 중국 선사시대 역시 Mesopotamia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학자들의 통론이며, 한나라이건 당나라이건 Silk Road를 통하여 서방문화 또는 인도로부터의 문화가 유입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또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여 그것이 곧 한민족(漢民族)의 영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장기간 지배하였던 북방기마민족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전통계승은 아무 비판 없이 옛것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라는 것은 그 의미작용체계가 전달되어 가고 또 전달되어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 전달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관습화(慣習化, Convention)하지 않으면 문화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문화라는 것은 그러한 중에서도 유입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지역의 풍토에 따라 또 민족성에 적합하도록 변질되는 것이다. 그 변질의 농도가 진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Gothic양식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다르게 꽃핀 것도 그러한 것이다.

독일의 전통적인 예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표현주의예술도 또한 그러하다.

원래 표현주의(Expressionism)라 함은 세기말에서부터 시작한 반사실적 회화의 경향을 일괄하여 말하며, 좁은 뜻에서는 1차대전을 전후하여 독일에서 일어난 야수파(Faubism)에 호응하는 예술운동을 말한다.

Cubism과는 반대로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는 화면 자체의 평면성 즉 2차원을 긍정하자는 것이며, 왜 평면 즉 2차원에다가 투시화법 즉 3차원의 세계를 재현하려는 모순을 범하려는 것인가라는 것이 야수파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면적인 화법으로써 화려한 색채를 구사하여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야수파의 태도에 호응한 것이 독일표현주의이며, 건축에서는 펠치히(Hans Poelzig), 베르그(Max Berg)를 위시하여 멘델손(Mendel Son), 헤에링(Hugo Häring), 샤로운(Hans Sharoun) 등 세계적으로 걸출한 건축가들에 의해 독일의 예술 독일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시 말하여 하나의 문화가 발상되고 그 의미체계가 전달되어 반세기에 걸쳐 전통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건국후 200여년 밖에 역사를 지니지 못한 미국의 경우 라이트(F. L. Wright)는 현대건축의 선구자이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그 뒤를 뒤따르는 많은 걸출한 건축가들 역시 미국의 문화창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옛 조형은 중국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가 단 한사람에 의하여도 또는 집단에 의하여도 전파되는 것이며, 또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까닭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난방형식이라고 자부하는 온돌구조는 먼 Silk Road의 서쪽 끝 Kashgar에서도 쓰이고 있는 구조이다. 그렇듯 문화의 전파는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옛건축의 형태의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서 지붕의 모양은 필시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붕의 그 독특한 형태는 중국뿐이 아니라 동양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구조라든가 형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러한 건축양식의 발상지가 어딘지 알 길이 없으며, 다만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적 양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념성을 지니는 건축에 반드시 그러한 양식을 적용시켜야만 전통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한 강한 영향중에서도 독일표현주의에서와 같이 그 민족의 개성적 창조성이 발휘되어 새로운 전통을 이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영향을 질게 받은 속에서도 뛰어난 독창성을 발휘한 것은 신라시대 석탑이 그 한 예이다. 탑은 불교문화이며 중국은 전탑(塼塔), 일본은 목탑, 우리나라는 석탑으로서 그 특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것이며 또는 민속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특질들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왜 동양건축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형태를 우리의 옛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써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양 생각하여야만 되는 것인가.

신라시대 석탑의 경우만 하더라도 직선과 곡선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현대감각마저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극단한 장식성을 지닌 “다보탑”과

장식성을 배제한 “석가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수법에서 추출하여 현대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건축에 장식성을 부여한다면 형태에서의 융화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비단 석탑의 경우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며 우리민족의 독창성이 넘치는 것이 있다면 전통계승의 방법으로서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합리주의 사상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현대과학문명은 극도로 발달한 까닭에 그 냉랭한 기하학적인 것에 우리의 언어로써 인간적인 것을 부여하여 전통계승을 시도한다면 방법론에서 어쩔 수 없이 절충주의로 지향하여야 할 길외에는 없지않겠는가. 바로 지금 일고 있는 Post Modernism의 사조가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젠크스가 주장하기를 전문가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또는 Vernacular(방언)한 것도 심지어 상업주의적인 언어라도 상관없으며 그에 첨가되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맥(Context)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Post Modernism의 사조이다.

그러한 사조의 근원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언어학의 발달이며 그로 인해 철학은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고 철학의 재건을 부르짖게 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적 사변철학(思辯哲學)을 유리시켜서는 안되며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특히 인간의 행위에 방향을 설정해 주며 생명에 새로운 내용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 실용주의(實用主義, Pragmatism)의 철학이며 Post Modernism 또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 예로 페이(L.M. Pei)와 같은 경우 철저하게 합리주의를 추구하였던 작가가 고국인 중국으로 40여년만에 돌아가 1983년에 북경근교에 건설한 한 호텔건축은 전혀 방향을 달리하여 중국의 토속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시켰다. 그것은 결국 Post Modernism의 방법론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서구의 합리주의건축 특히 이에딕케(yurgen yöedicke)가 말하듯 제 1기

계 시대의 건축에 도취해 있는 우리들은 Post Modernism의 작가들의 극단한 절충주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 비판 없이 거부하는 것이 동조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못하다.

건축을 언어로 간주하는 1단의 작가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Post Modernism의 사상이나 또 건축을 기계로 간주한 옛 거장들의 사상을 다 같이 음미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창조적인 우리의 전통을 기록하여야 된다는 것이 필자 나름의 소견이다.

모든 의미가 제거되고 전문가들간에 통용되는 언어만이 구사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그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가령 일상언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통명스럽게 쓰였다고 가정하자.

A: “식염을 좀 주시요.”

B: “소금을 좀 주시요.”

C: “음식이 좀 싱겁군요.”

위 세가지 말 중에서 아마도 우리는 C가 말한 완곡한 표현을 즐겨 쓸 것이다. 말하자면 A는 일상언어가 아닌 말을 써서 상대의 무지함을 조소한 것이라면, B가 말한 기층언어체(基層言語體)보다도 C가 말한 장식언어체(裝飾言語體)가 더욱 점잖하다는 것이다.

건축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인간생활을 담은 그릇으로서 건축이 장식성을 지니게 되는 흐름 그 자체를 거부한 제 1기계시대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그것인들 수사론적(修辭論, Rhetorics) 조작을 안한 바 없으며, 그 조작조차도 게재할 수 없는 순수한 기계로서 부품들이 조립되는 것과 같은 건축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Post Modernism은 전문가사이에만 통용되는 언어뿐이 아니라 소멸되었던 의미를 되찾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가령 고색이 창연한 한 거리를 우리들은 군(群, Cluster)으로서 파악한다. 그 거리에 건물 하나를 다시 건축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가.

다만, Post Modernism은 그것이 서구의 언어요 방법에 있어서 과격할 때 우리들은 관습에 의해서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다.

말일에 합리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에 우리의 고사성어를 대비(對比)시킨다면, 그리하여 우리들 동양인의 특질인 암유(暗論, Metaphor)에 찬 것이라면, 또 더욱 더 나아가 우리민족이 독창적으로 이룩한 예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면 그것 역시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인가 묻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학의 발달로써 논리적 실증주의 철학이 발달하였다.

논리적 실증주의 철학에서 하나의 명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Syntax, 논리적 Semantics로써 그것이 진리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명하는 것이 다 언어학적 방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철학은 철학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철학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Pragmatism의 정신인 것이다.

현대는 건축의 3요소로서 3E, 즉 Ecology, Emery, Environment와 3S, 즉 Syntax, Semantics, Sculpture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한 속에서 기호론(記号論, Semiotics)이 대두되고 새로운 예술론으로서 예술기호론을 낳게 되었으며, 문화

기호론이라든가 건축기호론과 같은 각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랭거(Susanne Langer)가 인간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이외는 없다고 하고 그 언어에 류비(類比)시켜 모든 예술을 기호로 간주하고 예술기호론을 전개한 것 또한 그러하다.

본문에서 필자가 논한 것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므로써 분석을 정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조형에 쓰이고 있는 곡선은 도자기에서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거니와 S자형의 현수 곡선으로서 그것의 일부 그것의 변형 등이라고 한 것은 Syntax적 분석이다. 그 곡선의 의미는 고귀한 태양과 달의 궤적을 류상화(類像化, Iconic)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것의 교차, 또는 병렬 등 여러가지 기교를 썼다고 말한 것은 Semantics적 분석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여러가지 조형에 나타나는 것의 배후에는 천인일체사상이 깔려 있다고 한 것은 Pragmatics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 필자 나름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한편, 모든 예술의 창작에 있어 그것의 개념형성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느 무엇보다도 인간감정

을 정확히 표현하는 언어의 경우와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건축을 언어로서 보는 태도가 Post Modernism을 낳게 하였던 것이며, 기계관적 건축에 대한 단순한 반론으로서 또 일시적 유행으로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작가들도 온건한 장식성을 작품에 나타내는 흐름이 서서히 일고 있으며, 필자 역시 과격한 표현 수단을 구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전통계승은 되어야 한다. 그 전통계승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옛 조형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그것을 다시 조명하여 표현할 때 Post Modernism의 방법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것을 깊이있게 고찰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적인 문화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많은 실예의 분석이 있어야 하나 협회의 호의로 지면을 너무 많이 할애하였으므로 후일에 다시 집필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그저 필자가 원하는 것은 여러 건축사의 작품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상과 같이 소론을 펴본 것이다.

소비자는 국산애호 기업가는 품질향상